

[COVID-19] 비즈니스 회복탄력성 유지 전략

Maintaining business resilience in the face of COVID-19



코로나 19 위기 상황은 기업 조직에게 비즈니스 회복탄력성 (Resilience)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는 무엇이 문제가 되고, 어떠한 조치를 실행해야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조직 운영 유지 및 직원 보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즈니스 운영의 시작부터 끝까지 최적의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비상 계획 수립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업 조직의 전략적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위기 관리 준비 시스템을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표지 클릭시, 원문 다운로드 가능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이사

Tel: +82 2 2112 6744
hyojunglee@kr.kpmg.com

장진영

책임연구원

Tel: +82 2 2112 7095
jinyoungchang@kr.kpmg.com

비즈니스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IT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적지 않은 직원이 원격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사전적으로 확장하고 VPN 및 라이선싱 역시 선제적으로 구축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도 검토하여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트래픽 과부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IT 인프라를 통한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보안 이슈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사이버 경계 태세를 상향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안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특별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입니다. 조직 내·외부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전반적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보안 사고가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또한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전사적으로 대응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Keywords ▶

#코로나19 #COVID-19 #회복탄력성 #IT인프라 #사이버경계